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늦가을 청계산 산행

일상의 틀 속에서 지내다 보면 산에 가기가 쉽지 않다. 날마다 할 일이 있고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갈 곳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고, 시간의 여유도 없지만, 마음의 여유는 더 없다. 그래서 혼자서 산에 가는 것은 쉽지 않고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가족들 각자 할 일이 있고 처지가 있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선택이 자기 속한 단체에서 가는 산행에 동참하는 일이다.

지난 토요일, 성균관대 총동창회와 성균관대 법대·로스쿨동창회가 주최하는 '20회 성균가족등산대회'에 참가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산행에 알맞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에서 내렸다. 오랜 만에 만나는 선배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서울시 서초구 남쪽에 있는 청계산이수봉(二壽峰)을 향하여 출발했다.

청계산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산들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와 과천시, 의왕시의 경계를 이룬다. 청계산이라는 이름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아 '청계(淸溪)'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푸른 색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을 두고 청룡산이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청계산은 남북으로 길게 능선이 이어지는데 주봉인 망경대(望景臺: 618m)를 비롯하여 옥녀봉(玉女峰 375m)·청계봉(582m)·이수봉(545m) 등의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망경봉은 고려가 망하자 충신이었던 조윤(趙潤, 후일 이름을 조견(趙?)으로 바꿈)이 청계산 정상에서 북쪽 고려의 수도인 송도를 바라보며 세월의 허망함을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수봉은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된 정여창(鄭汝昌)이 이곳에 숨어 위기를 두 번이나 모면하였다고 지어진 이름이다. 추사 김정희는 청계산 옥녀봉 북쪽 자락에 초당을 짓고 살았다. 서쪽에 관악산(冠岳山: 632m), 남쪽에 국사봉(國恩峰: 538m)이 솟아 있으며, 이들 연봉과 더불어 서울의 남쪽 방벽을 이룬다.

가파른 산길을 조금 빠른 걸음으로 오르니 이마와 얼굴, 등허리에 땀이 흠뻑 젖는다. 운동이 되

라고 평소 시내를 다닐 때에도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다. 청계산입구역 부근 출발지에서부터 더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숨을 몰아쉬며 오르니, 오랜 만에 등산다운 등산을 하는 것 같았다.

목적지인 이수봉까지는 3.6km 산길이다. 봄, 여름, 그토록 푸르던 나무 잎들이 벌써 낙엽이 되어 수북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일은 번잡한 세상사에서의 휴식이다. 일상에 매몰되어서 잊고 지내던 쉬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소중한 시간이다. 함께 오르는 사람이나 내려오는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정다운 눈길과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산행 길이다. 산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나 보다. 그래서 예부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인자요산 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지자요수 知者樂水)고 전해지고 있다.

이수봉 정상 못 미처서 잠깐 땀을 식히고 정상에 올랐다. 산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목적했던 산의 정상을 모른다는 것은 기쁨과 성취감이 있다. 산을 오를 때는 만인이 평등하다. 자기 체중을 지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한다. 자기 건강 상태도 거짓 없이 바로 드러난다. 누가 힘센 사람이 없고 갈 수도 없고, 편법이나 반칙으로 올라갈 수도 없다.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갔다고 속이거나 우겨댈 수도 없다. 산은 평등과 정직, 남에 대한 배려와 인간애를 가르쳐준다. 위선이나 궤변, 이기심은 바로 탄로 나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산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은 많은 교훈을 준다. 몸무게가 다리에 무겁게 가감 없이 실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쉽다. 건장한 남자들도 자칫 발목이 접질리어서 서 자기 발로 내려오지 못하는 고통의 길이 되기도 한다. 스산한 가을바람에 흠날려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안간힘으로 진흥의 팻말 단풍으로 비탈에 서있는 나무들을 볼 때는 아름다움 보다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경사가 완만한 곳 보다는 가파르고 척박한 비탈에 서있는 나무들이 생명의 반발력 때문인지 더욱 선명하고 더욱 고운 단풍으로 물든다고 한다.

우리 인생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언젠가는 저 낙엽처럼 떨어져서 흙 속에 묻히어야 한다. 인생의 하산길도, 정치의 하산길도, 만남의 하산길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을산 하산길은 내려놓고 비우는 삶의 근원, 삶의 철학을 일깨우는 길이다. 오늘 하루를 깊이 감사하면서 삶의 동지를 찾아 돌아왔다.

社說

유치인 의무 면담제 시행해야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반드시 면담해야 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키로 했더니 다행스럽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중로서 △경기수원남부서 △경기부천원미서 △강원 춘천시 △대전대덕서 △광주광산서 △대구성서서 △부산 동래서 등 9 곳에서 시행한다.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 필요 여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면담내용 기록, 진정서 접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 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광주광산경찰서가 사법운영에 들어간다는 가까워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이를 반긴다.

경찰의 이같은 유치장 입감 피의자에 대한 의무 면담제 시행은 피의자의 인권 강화와 신장 차원에서 크게 고무적이라 하겠다. 인권이 바로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콜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091 (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별 쏘임 예방주의 생활화 해야

가을이 되면서 별집제거 출동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별을 발견해 직접 제거하려다 별에 쏘여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여 주길 당부드린다.

별에 쏘였을 때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려운 피부 발진을 동반하여 기도도와 호흡, 순환

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여러 번 쏘여 치료가 늦거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의식 저하, 심하게는 전신성 과민반응이 나타나 생명이 위협해 질 수 있다. 별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흐르는 물에 비누로 가볍게 씻고

붓기를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흡수 지연을 위해 얼음팩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목이 붓거나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으로 내원하여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게 되면 증상이 회복되게 된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해당 반응을 일으키게 된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노출이 되었을 시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하며,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하겠다. 또한 각 차량이나 가정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